



사단 법인 한국아메리카학회소식

The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NEWSLETTER

2015년 미국학 세미나 (학부생 워크숍) 개최 소식

한국아메리카학회는 학부생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31일(토) 학부생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당해 국제학술대회 주제인 “‘아메리카들’의 형성: 초국가주의를 넘어서는 교류와 변화”이었으며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육사, 한국외대, 한양대 등에서 재학 중인 총 18명의 학부생이 발표자로 참가하여 미국의 문학,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Workshop I>

- Christian Cultural Heritage Appearing as American Legal Issues (이영조, 한국외대)
- 거부의 탄생: 산업화, 대기업, 그리고 노동자 문제 (이상협, 경희대)
- 세계 2차 대전과 미국의 여성 운동 (백현준, 육군사관학교)
- The Legacy and Resonance of Tom Bradley's L.A. Politics (이윤지, 한양대)
- 좌장: 박진빈 교수 (경희대) / 토론: 김종식 (경희대), 김동영 (한국외대)

<Workshop II>

-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의 상징성과 그 파급력 (유화영, 서강대)
- 『소리와 분노』의 찬란한 실패: 소설 속 인물의 ‘이름’을 통해 드러나는 언어의 피상적 한계 (김영인, 고려대)
- *Frozen*: A Breakthrough in Disney, or Pretending to Be? (오한빛, 서강대)
- A Reevaluation: Shedding a New Light on W. H. Auden's Voluntary Exile (김지연, 고려대)
- 좌장: 이동신 교수 (서울대) / 토론: 정준하 (서강대), 차혜수 (고려대)

<Workshop III>

- African American ‘Soul’ and Korean ‘Han’ as Reflected in *The Bluest Eye* and Korean Literatures (문나래, 한국외대)
- The Emotional Attachment of Korean-Americans in the Novel: *The Interpreter* by Suki Kim (김세현, 육군사관학교)
- Does Asian American Privilege Exist? (장수진, 서강대)
- 미국 인구의 인종 구성율의 변화와 한국의 “다문화” 사회: 법, 정책과 사회적 인식 (김겸/오소연/이병호, 서강대)
- 좌장: 이찬행 교수 (성균관대) / 토론: 조은영 (서울대), 장주연 (서강대)

<Workshop IV>

- *White Noise*: The Whisper of Waning Wishes in America (김재현, 고려대)
- Death and Literature in Richard Powers's *Galatea 2.2* (박세진, 서울대)
- The Trap of Individualism and Pluralism in Postmodern America (안정우, 고려대)
- Memory in “Lullaby” and *Maus*: Extending the Frontiers of Literary Form (배수현, 서울대)
- 좌장: 서동하 교수 (육군사관학교) / 토론: 김나영 (서울대), 이정수 (고려대)

워크숍 사진



참관기 1

유화영 (서강대학교)

처음 서강대학교 부경숙 교수님을 통해 한국아메리카학회 학부생 세미나 참가를 제안 받았을 때, 막연한 두려움 보다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먼저 생겼다. 서강대학교 미국문화전공 3학년 학생으로서 그동안 내가 배웠던 것들을 얼마나 실전에서 사용하여 펼쳐볼 수 있을지에 대한 테스트였으며, 그 결과물을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침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한 달 반간 미국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나의 첫 논문(?)을 쓰기위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막상 호기롭게 시작한 이 일이 시간이 갈수록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막연한 두려움마저 생기기 시작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주제 선정에 있었다. “‘아메리카들’의 형성: 초국가주의를 넘어서는 교류와 변화”라는 대주제의 흐름을 따르되 그 광범위한 틀 안에서 나만의 독창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나의 첫 과제였다. 또한, 독창성을 살리되 너무 파격적이거나 큰 흐름이 없는 주제는 피해야만 했다. 고민 끝에 나는 미국 여행 중에 방문하였던 그라운드 제로 현장이 좋은 주제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라운드 제로에서 나는 지금의 미국이 형성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을 도출할 수 있었고, 그라운드 제로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속에서 교류와 변화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라운드 제로의 상징성과 그 파급력”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좀 더 넓은 지식의 장에서 우수한 학생들과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교수님들에게 미숙하나마 나의 글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세미나 후에 좀 더 발전된 나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으며,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또한 기뻐다. 무엇보다도 같이 참가한 서강대학교 동기들, 후배들과 더욱 친해진 것 같아 좋다. 차근차근 글을 써가면서 내가 마음속에 스스로 새긴 단어가 있었다. 바로 완성도(completeness)였다. 아무리 거창한 주제에 대해서 쓴다고 해도 결국 그 글의 완성도는 끝까지 성심성의껏 쓰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내가 약한 부분이기도 했다. 비록 많이 서툴고 모자란 점이 많은 논문이지만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그라운드 제로의 상징성과 그 파급력”을 완성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싶었다.

참관기 2

김세현 (육군사관학교)



불게 물든 단풍이 서서히 작별을 고하던 10월의 마지막 날, 저는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미국학 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중간고사를 마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정신이 없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배우고 있는 다른 학부생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보았는지를 나누는 자리였기에, 저는 매우 들떠있었습니다. 세미나의 맨 첫 번째 순서는 신문수 교수님의 미국의 인종주의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미국은 여러 나라의 이민자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계층이 존재하고, 세대가 존재하며 그 사이에서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제가 강의를 듣고 나서 racism과 racialism의 차이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갈등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의 맨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워크숍은 제 3분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동기생이 참가했던 제 1분과에 참관을 하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발표는 한국외대 이영조 학생의 Christian Cultural Heritage Appearing as American Legal Issues이었는데, 미국은 수정헌법 제 1조에서 나타난 바대로 어떠한 종교도 국교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미국에서 벌어진 법적 문제들 가운데 종교와 관련 있는 것들이 상당하였습니다. 당연하게만 받아들였던 것들에게 질문을 했던 그 학생의 발표가 기억이 오래 남았습니다. 시간이 되어 저는 제 3분과 교반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저의 주제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 1.5세대로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뿌리 없는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인물을 다룬 소설 The Interpreter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시절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은 미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들과 한국인으로서 제 안에 있는 전통적인 가치들의 충돌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점을 찍었고, 육군사관학교는 또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에 육사 생도로서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른 학부생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국은 여러 개의 색깔과 질감의 실로 짜인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작품이 어느 누구에게는 멋지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흉측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은 다채로운 국가이며 이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Jae-Hyun Kim (Korea University)



With the year coming to an end, I look back at my scheduler filled with due dates and plans, some that were successfully completed and others that remain as plans. Fortunately, the ASAK workshop is one of the successful ones. In fact, the word “successful” would be insufficient. Through this workshop, my affection towards my major—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grew more than before, and it was indeed a valuable experience.

I still remember how nervous and anxious I was when Professor Hyewon Shin first recommended this opportunity, and especially when I realized I was the youngest among the participants from our school. Although I had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first place, thinking it would be a “new experience” for me, the process of writing, editing, and rereading myriads of thesis papers during the summer vacation was tougher than I had imagined. The four months of preparation were often stressful and seemed never-ending.

However, as the saying “no pain, no gain,” these four months have endowed more than I had expected. Adding to the sense of accomplishment the moment I finished the paper, there was so much to learn, especially on the conference day. In accordance with the topic of the seminar, which was “Americas,” the topics and speeches of each professor, graduate mentor, and undergraduate participant were diverse and colorful. From literature to architecture and film, the undergraduate students brought up various fields of work to discuss contemporary America from different perspectives. While listening to their eloquent speeches, I could visualize their hard work over the past months and their attachment to their own papers. The fact that I was with such passionate people was a great honor and a strong stimulant for me.

Even though we were not in America and I have never been there, the conference offered an indirect experience of its culture and society. This, I believe, was the virtue of this workshop. With professors and students from a variety of sectors and majors discussing numerous issues about America, it was the first time I felt that I was actually learning for learning’s sake. Since this was my first conference as an undergraduate student, I was affected and thrilled to be part of the group.

Above all, I firmly believe this opportunity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ASAK staffs and members who worked hard behind the scenes. Also,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other participants who made the conference fruitful with their well-prepared and intriguing presentations. Next, I thank all graduate mentors and professors for giving active feedbacks and bringing about interesting debates. Especially, I cannot leave out my mentor Jungsoo Lee, who must have been more stressed than I was, for editing my paper until the very last minute.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thank Professor Hyewon Shin the most for offering this chance to get to know about ASAK and America, and for giving generous advice about my career.

참관기 4

Yoonji Yi (Hanyang University)



A month and a half has gone by and I still can't believe that I won third place at the 2015 ASAK's Undergraduate American Studies Seminar. Getting started only with a recommendation from Professor Lee Hyungseob of the English department, everything was a new challenge for me, having absolutely no experience of attending professional academic seminars whatsoever. It was actually pretty dreadful at first not even knowing how to set directions and choosing the right theme for my presentation. Even after deciding to present about the Bradley Effect, so unfamiliar and so unknown, I still struggled with setting the structure and using the right content. All I had was the two month experience of interning at the topic related research institution this summer in L.A. However with the support from my mom who encouraged me to learn the value of academics, my boyfriend who gave me great advice about attending professional academic seminars, and professors who counseled me with the directions for my presentation and provided me with vital feedbacks, I managed to work my way through the two month of preparation. I surely cannot say that it was an easy and delightful journey, but I definitely can say that I have learned so much, not only about the academic aspect of my presentation, but also about dealing with the whole process of researching and pursuing my studies. On d-day, I felt great accomplishment with getting to present my outcomes in front of other students in such prestigious association and it was a great experience to watch and think about other's presentations and studies. It all was an awesome experience after all, and I guess winning third place made it even better.

2015 한국아메리카학회 정기총회 개최

2015년 ASAK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15일(화)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회는 조철원 회장의 개회사와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의 임기에 관련된 회칙개정 공지에 이어 2015년 우암논문상 시상 및 2015년 회계 및 결산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학회 자금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끝으로 이현송 신임 회장이 인사말과 내년도 학회 운영 기조를 전하고 일부 신임 이사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학회 운영 논의

1. 국제학술대회 및 학회 학술행사의 내실을 다지고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8년부터 학회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시 편집위원장의 연임여부가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 편집위원장(추재욱/중앙대)이 위원장직을 1년 더 맡기로 하였습니다.

■ 우암논문상

문형준 (중앙대) / The Rise of Global Zombie Apocalypse: Global Order, American Fear, and the Call for the Realist Subject



신임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16년 우리 학회의 회장을 맡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현송 교수입니다. 내년도 우리 학회의 사업 방향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바뀌는 사항에 대해 회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는 올해 창립 50년을 맞았으며, 국제 미국학 학회(IASA)와 함께 국제학술대회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회가 미국학을 연구하는 세계의 학자들과 연계를 맺는 의미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년 전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이사님들이 그 많은 일을 정말 열성적으로 맡아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른 것은 우리 학회의 자랑입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우리 학회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문학, 역사학, 철학, 정치학, 사회학 등 주요 학문 분야에서 쟁쟁한 분들이 과거에 회장이나 임원으로 참여한 전통 있는 학회입니다. 많은 외국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학회는 국내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외면의 뒤에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근래에는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의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교환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회원님들이 학회 활동을 통해 얻는 것이 빈약하기에 한두 번 참여하고는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내년의 사업은 학회의 내실을 높이고 학제간 논의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꾸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회 활동에 참여하면 무언가 얻어가는 것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학회의 기반도 조금씩 넓혀지겠지요.

1. 『미국학논집』 관련 변화

- 원고 투고 및 심사 과정의 온라인화: 내년 첫 호에서부터 원고의 투고와 심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학술지 배포의 온라인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PDF 형식의 파일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합니다. 인쇄된 책을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기에 이를 절약하고자 합니다. 저자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및 원로 선생님들에게만 인쇄된 책자를 제한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 특집 논문의 기획: 특정 주제에 대해 다양한 학문 분야가 참여하여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학회의 학제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 편집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연장: 편집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기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규정과는 별도로, 올해에 편집위원장을 맡으신 중앙대 추재욱 교수님이 내년에도 편집을 맡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2. 학회 행사 관련

1) 국제 학술대회

- 내년 9월 30(금)~10월 1일(토)에 치르는 일정으로 현재 기획 중입니다. 잠정적으로 정한 주제는 “The United States in Change: Memory, Present, and After”입니다.
- 예년과 다른 점이라면, 국내 학자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말 세션을 영어 세션 못지않게 활성화하여 (예컨대 50:50 정도로), 국내 학자들이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간 아이디어를 활발히 교환하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 학제간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를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사람으로 정하는 안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자가 없이 진행되는 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아이디어가 있으면 국제이사를 맡은 숭실대의 이광진 교수님(010-9965-1949, pynchon69@gmail.com)에게 연락 바랍니다.

2) 소학술대회 및 특집 논문

- 6~7월경에 소규모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학제간 논의를 활성화하는 장을 실험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미국과 관련하여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미국학은 물론 문학, 역사학, 정치학 및 기타 사회과학의 분야에서 근래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서 상호 토론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학술대회가 끝난 후 각 논문의 저자와 토론자에게 원고를 보완할 시간을 주고 심사를 거쳐 우리 학회 학술지의 9월호에 특집으로 게재하려고 합니다.
- 논문을 쓸 사람을 전 회원에게 공모하여 각 학문 분과 당 1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여 회원 모두에게 개방된 행사가 되도록 하려 합니다. 아직 기획 단계이므로 회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환영합니다. 총무를 맡은 한국외대의 박정만 교수님(010-4254-5062, jungmany@gmail.com)에게 연락바랍니다.

3) 월례 콜로кви엄

- 학회 회원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얼굴을 익히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래에 선생님들이 몹시 바쁘게 생활하므로 우리 학회에서 또 새로운 모임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회의 문제점 중 하나가 회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소통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기에, 월례 콜로кви엄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매월 1회씩 만나서 1~2명의 발표자가 자신의 최근 연구나 현재 관심 등을 20~30분간 이야기 하고 참여한 선생님들이 그에 대해 30~40분간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가급적 형식을 배제하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3회 실행해 보고 성과가 빈약하면 접겠습니다.

4) 목요강좌 및 기타 행사

- 목요강좌의 기획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13년 실행했던 방식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기관의 문화강좌와 연계를 맺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된 몇 개의 문화강좌를 선정하여 우리 학회 강연의 일부를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학회의 정체성이 학제간 연구에 있으므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활용하며 학회의 역량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전국의 미국학과나 미국학 연구소가 있는 곳에서 강좌를 돌아가며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4년에 실행했던 방식입니다. 우리 학회의 활동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해 있어서 연구재단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학회의 활동 기반을 전국으로 넓힐 필요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두 가지 방식은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회원님들의 의견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정하려 합니다.

- 대학원생 및 대학생 워크숍 역시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과거의 행사 결과를 평가해 보고, 행사 실행 여부를 포함하여 회원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5) 예산

- 학회의 경비를 회원의 회비만으로 조달하는 학회는 한국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 우리 학회의 재정 구조는 특히 열악합니다. 회원 중 상당수가 평생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새로이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인문학에 기반을 둔 우리 학회에 대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구하는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학회의 운영비용을 절약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회 활동의 내실을 높여 회원들이 아끼는 학회가 됨으로써 회비와 참가비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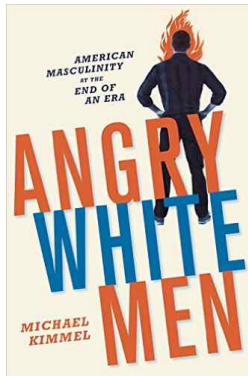
오랜 전통의 학회의 회장직을 물려받아 큰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학회를 회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흥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장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회원님들의 참여와 지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송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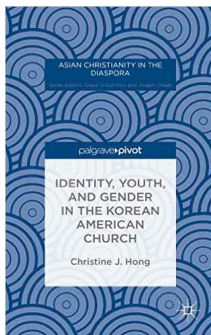
신간 안내

Angry White Men: American Masculinity at the End of an Era by Michael Kimmel (Nation Books, 2015)



His book, *Angry White Men: American Masculinity at the End of an Era*, is an engaging and eye-opening book about the lives and attitudes of white men who are expressing rage and feelings of "aggrieved entitlement" in a new age of gender relations. In the vast social, economy and political changes women have gained increased equality in the home, and the workplace, while many straight white males are experiencing a sense of loss. Having worked hard and fulfilled what they view as the requirements of masculinity, men now find that the economic rewards are slow in coming. With a sympathetic ear, he examines the social construction of men's anger express in politicized anti-immigrant, anti-gay, and racist sentiment flamed by right-wing media. Feeling that the system is now stacked against them, we are seeing outbreaks of mass murder by young men at schools and workplaces and men's rights activism which seeks to restore male privilege and "stolen" fathers' rights to extreme cases of battering and murder of women. Through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the Extreme Right represented in the Tea Party, Neo-Nazi groups and religious fundamentalism, men are expressing despair over their perceived loss of status. White supremacist groups are drawing a growing number of women who are embracing old models of gender relations and the slogan of "taking our country back." The beginning of the end of patriarchy, Kimmel argues, is also the start of a better life for 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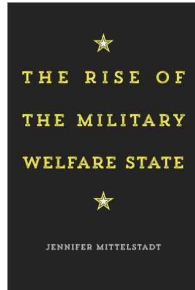
Identity, Youth, and Gender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by Christine Hong (Palgrave Macmillan, 2015)



In her new book, *Identity, Youth, and Gender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Dr. Christine Hong explores the lives of female Korean American Mainline Christian adolescents. Hong's work, an exercise in feminist ethnography and practical theology, focuses on the difficulties these young women encounter as people who face marginalization within both broader American society and their own faith communities, and discusses ways to help them overcome these obstacles. Hong's sensitive analysis is sure to benefit anyone interested in religion, ethnicity, and youth in America.

The Rise of the Military Welfare State

by Jennifer Mittelstad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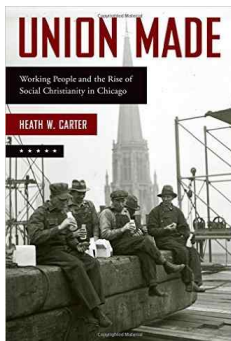


Since the end of the draft, the U.S. Army has prided itself on its patriotic volunteers who heed the call to “Be All That You Can Be.” But beneath the recruitment slogans, the army promised volunteers something more tangible: a social safety net including medical and dental care, education, child care, financial counseling, housing assistance, legal services, and other privileges that had long been reserved for career soldiers. The Rise of the Military Welfare State examines how the U.S. Army’s extension of benefits to enlisted

men and women created a military welfare system of unprecedented size and scope.

Union Made: Working People and the Rise of Social Christianity in Chicago

by Heath W. Cart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Heath W. Carter's new book offers a bold interpretation of the origins of the American Social Gospel by highlighting the role of labor in both articulating key ideas and activism. He begins in antebellum Chicago with its modest frontier churches in which different classes came together as equals. The prosperity of the post-Civil War era re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capital and the churches bringing new class divisions. Opulent churches of the well-to-do and highly compensated clergy were increasingly compromised in their appeal to the captains of industry.

Viewing poverty as a personal failing, while success a measure of divine approval, drew working class resentment. It was in this gilded age that labor activist, with no support from leading seminaries or pulpits, advocated for themselves with appeals to the bible and theological innovation. The battle was between competing interpretations of Christianity in which a radical Jesus stood with the poor. Trade unionists advocated for the eight-hour workday, Sunday rest, just wages, and the abolishing of church pew rentals. Labor criticism, strikes, and demonstrations, brought anxiety to church leadership who were losing the loyalty of wage earners they had long enjoyed. They attempted a strategy to divide the labor movement by denouncing socialist and communist and approving of "sensible" wage earners. Continued pressure from below instigated reluctant middle-class church leaders to address the labor question in what became known as the Social Gospel. Carter has provided a corrective to how we think about the origins of the Social Gospel away from a middle-class progressive initiative to labor as advocates of their own interest.

학회 소식

○ 2016 ASAK 51st International Conference

- 주제: The United States in Change: Memory, Present, and After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용인) 잠정 확정
- 일자: 2016년 9월 30일(금) ~ 10월 1일(토) 양일간
- * CFP, 참가비/등록비, 숙박 등 세부 사항은 2016년 뉴스레터 1호에 공지 예정

○ AAAS(Association for Asian American Studies)와 ASAK간에 체결된 MOU에 의거해 2016년 8.28~8.30에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AAAS 국제학술대회에 ASAK 대표로 참여할 패널이 선정되었습니다.

- 패널주제: Revisiting Asia's Americas: A Transpacific/Hemispheric Reading of Asian American Fictions and Poems
- 패널명단: 이수미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이수영 (Hanyang Cyber University), Robert Grotjoh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SAK 학회 회원이시고 2015년에는 ASAK 국제이사로 활동하셨던 김의영(인하대) 교수가 IASA (International American Studies Association)의 학회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 신입 회원 명단

- 평생회원
김이은 (서울대), 김영훈 (서강대)
- 정회원
오세웅 (Rider University), 이주은 (건국대)
- 준회원
김나림 (연세대), Miranda Kerkhove (서강대)

○ 『미국학논집』 게재료 및 투고 요령

- 논문게재료는 연구비 수혜논문인 경우 30만원, 연구비 수혜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 전임은 20만원, 비전임은 10만원이고, 20페이지 초과 시 페이지 당 1만원이 추가됩니다.
-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 분들은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논문 게재 신청서와 함께 투고 논문을 asakjournal@gmail.com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6년도 발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봄 호: 4월 15일 마감 / 5월 31일 발간
 - 가을호: 8월 15일 마감 / 9월 30일 발간
 - 겨울호: 11월 15일 마감 / 12월 31일 발간

학회 뉴스레터 편집부에서는 회원들의 동정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게재하시고 싶으신 소식이나 관련 정보가 있으시면 김혜린 간사 (lynnnnkim@gmail.com)나 양희용 출판이사 (mokzart@gmail.com)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회원명단

2015년 12월 30일 기준

가상준 (단국대)	김성옥 (경희대)	민은경 (서울대)
강경화 (UN대표부)	김소임 (건국대)	박경산 (연세대)
강선자 (경기대)	김순식 (명지대)	박광선 (전북대)
강우성 (서울대)	김양순 (고려대)	박동규 (첨단통신)
강자모 (세종대)	김연진 (단국대)	박보량 (상명대)
강주현 (숙명여대)	김영민 (동국대)	박성희 (이화여대)
강 희 (대구대)	김영주 (홍익대)	박 엽 (고려대)
고경난 (한국외대)	김영희 (과학기술원)	박영의 (충남대)
고영란 (수원대)	김영훈 (서강대)	박원호 (서울대)
고지문 (전남대)	김옥렬 (숙명여대)	박은정 (한국외대)
곽소진 (K.C.C.)	김옥례 (한국교통대)	박은진 (숙명여대)
곽준혁 (숭실대)	김요섭 (홍익대)	박인찬 (숙명여대)
구은숙 (청주대)	김용권 (서강대)	박인휘 (이화여대)
구자순 (한양대)	김용성 (삼육대)	박재영 (전북대)
권석우 (서울시립대)	김은령 (이화여대)	박정만 (한국외대)
권승혁 (서울여대)	김은형 (건국대)	박정오 (명지대)
권오신 (강원대)	김의영 (인하대)	박진섭 (경동대)
권택영 (경희대)	김이은 (서울대)	박진임 (평택대)
김경동 (서울대)	김인숙 (국민대)	박현수 (세종대)
김경진 (경원대)	김인철 (한국방송통신대)	박형지 (연세대)
김길중 (서울대)	김재민 (한국외대)	박희진 (서울대)
김남균 (평택대)	김정규 (계명대)	배진숙 (브라운대)
김달용 (전남대)	김정기 (한국외대)	백낙승 (강원대)
김동식 (육사)	김정매 (동국대)	변창구 (서울대)
김명렬 (서울대)	김정숙 (홍익대)	부경숙 (서강대)
김명숙 (숭실대)	김준석 (동국대)	서석봉 (육사)
김명자 (Boston대)	김지원 (세종대)	서정갑 (연세대)
김명주 (충남대)	김진경 (서울신학대)	서지문 (고려대)
김문환 (서울대)	김진하 (계명대)	설인효 (연세대)
김미자 (한국외대)	김진희 (경희사이버대)	성경준 (한국외대)
김미현 (아주대)	김철호 (카이스트경영대학원)	소홍렬 (포항공대)
김민정 (이화여대)	김학준 (동아일보)	손동호 (한국외대)
김변웅 (동국대)	김 혁 (서울시립대)	손세호 (평택대)
김병옥 (인하대)	김 현 (경희대)	손영호 (청주대)
김복자 (홍콩대학)	김현숙 (수원대)	손정희 (중앙대)
김봉은 (고신대)	김형인 (외국어대)	손혜숙 (성균관대)
김봉중 (전남대)	김형준 (명지대)	송상용 (한림대)
김상률 (숙명여대)	김형철 (연세대)	송상현 (서울대)
김상옥 (울산대)	김혜진 (남서울대)	송승민 (경희대)
김석구 (단국대)	나영균 (이화여대)	송유재 (이화여대)
김선옥 (단국대)	나종남 (육사)	송혜원 (경희대)
김선희 (제주대)	남궁곤 (이화여대)	신동춘 (한양대)
김설자 (아주대)	류황태 (동의대)	신명순 (연세대)
김성경 (육사)	마인섭 (성균관대)	신명아 (경희대)
김성곤 (서울대)	문상영 (연세대)	신문수 (서울대)

신숙원 (건양대)	이경순 (전남대)	이흥필 (전남대)
신유섭 (연세대)	이경원 (대진대)	임성호 (경희대)
신정현 (서울대)	이광운 (대구가톨릭대)	임옥희 (경희대)
신조영 (대진대)	이광진 (송실대)	임용순 (성균관대)
신진범 (서원대)	이귀우 (서울여대)	임진희 (남서울대)
신현주 (숙명여대)	이동신 (서울대)	임창건 (동의대)
신혜원 (고려대)	이두진 (가톨릭대)	임현진 (서울대)
심계순 (중앙대)	이마지 (P.S.U.)	장영희 (서강대)
심방자 (송실대)	이보형 (서강대)	장정우 (한양대)
심영희 (한양대)	이봉삼 (단국대)	장정훈 (전남대)
안병만 (한국외대)	이봉지 (배재대)	장준갑 (전북대)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이봉희 (과학기술원)	장혜란 (한양대)
안외정 (경희대)	이상란 (숙명여대)	장혜영 (숙명여대)
안윤모 (서울여대)	이상혁 (상지대)	전국서 (울산대)
양경주 (제주대)	이상화 (중앙대)	전상범 (서울대)
양병현 (상지대)	이성호 (한양대)	전수용 (이화여대)
양석원 (연세대)	이소영 (상명대)	정경희 (아산정책연구원)
양영수 (제주대)	이소희 (한양여대)	정광숙 (숙명여대)
양희완 (육사)	이수영 (한양사이버대)	정택애 (이화여대)
양희용 (육사)	이순자 (숙명여대)	정문영 (계명대)
엄정식 (한양대)	이승복 (송실대)	정상준 (서울대)
여재혁 (여주대)	이영범 (중앙대)	정선화 (경희대)
예영수 (엠마오신학대)	이영석 (한양대)	정순국 (경희대)
오연화 (한국외대)	이영옥 (성균관대)	정연선 (육사)
오인철 (조선대)	이영효 (전남대)	정은귀 (한국외대)
오정화 (이화여대)	이영희 (숙명여대)	정은숙 (중앙대)
온창일 (상지대)	이옥남 (전남대)	정이화 (성신여대)
왕상한 (서강대)	이옥연 (서울대)	정정호 (중앙대)
왕 철 (전북대)	이온죽 (서울대)	정진이 (경희대)
원한광 (연세대)	이인호 (명지대)	조동성 (서울대)
유광호 (성균관대)	이장송 (육사)	조성규 (연세대)
유명숙 (서울대)	이재협 (서울대)	조숙희 (중앙대)
유상근 (서울대)	이재호 (육사)	조용상 (계명대)
유선모 (경기대)	이정덕 (전북대)	조웅규 (국회의원)
유성진 (이화여대)	이정훈 (연세대)	조은영 (전주대)
유인호 (충북대)	이정희 (숙명여대)	조지형 (이화여대)
유재건 (국회의원)	이정희 (한국외대)	조철원 (서울대)
유정은 (아주대)	이종률 (통일시대연구소)	조창희 (경희대)
유철인 (제주대)	이종영 (경희대)	주광일 (변호사)
유홍림 (서울대)	이주영 (건국대)	주미영 (한국외대)
윤병남 (서강대)	이주천 (원광대)	주정숙 (한국외대)
윤성호 (한양대)	이준일 (중앙대)	진선주 (충북대)
윤영오 (국민대)	이창신 (덕성여대)	차인석 (서울대)
윤재웅 (영진사이버대)	이춘란 (이화여대)	차중천 (성균관대)
윤정길 (성신여대)	이태운 (한미연합군사령부)	채재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윤정로 (과학기술원)	이현송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	천승걸 (서울대)
윤조원 (고려대)	이형대 (메릴랜드대)	천연희 (호원대)
윤화지 (한신대)	이형숙 (이화여대)	최경도 (영남대)
이건중 (고려대)	이형식 (건국대)	최경림 (단국대)
이경란 (이화여대)	이홍중 (부경대)	최기열 (서울대)

최다루 (경희대)
최병문 (상지대)
최선근 (세종대)
최성희 (이화여대)
최수경 (충남대)
최영 (이화여대)
최영진 (중앙대)
최은경 (덕성여대)
최정선 (한경대)
최종수 (한국외대)
최준석 (전북대)
최진영 (중앙대)
최협 (전남대)

최홍규 (중앙대)
추재욱 (중앙대)
한애경 (한국기술교육대)
한혜경 (동덕여대)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허정명 (계명대)
허정애 (경북대)
현영민 (충남대)
현완송 (제주대)
현종민 (경기대)
현중식 (중앙대)
홍명혜 (서경대)
황규철 (중앙대)

황성동 (경북대)
황영순 (평택대)
황은주 (서강대)
황주홍 (건국대)
황준호 (이화여대)
황필호 (강남대)
황필홍 (단국대)
황혜성 (한성대)
황훈성 (동국대)
Robert T. Albrecht (계명대)
Robert Anthony (평택대)
Robert D. Grotjohn (전남대)

회원가입 안내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원 여러분의 회비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회비는 40만원이고 연회비는 정회원은 5만원, 대학원생은 2만원, 기관회원은 10만원입니다. 회원님들의 개인별 납부 상황에 대해서는 학회의 김혜린 간사 (asakkorea@gmail.com / 010-9459-63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원님이 속하신 학교의 도서관이 우리 학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적극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우리은행 1005-101-283110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아메리카학회)로 입금하신 후 간사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입회원카드

성명		한문		영문	
생년월일				성별	
자택주소				전화	자택 직장 핸드폰
근무처주소				이메일	
전공					
최종출신학교					
학위논문제목					

Registration Card

Name (English)		Name (Korean)	
Date of Birth		Gender	
Home Address		Phone	Home Office Cell
Office Address			
Major			
Graduate School			
Dissertation Title			

한 국 아 메 리 카 학 회

(151-74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내
 전화: 02-880-6079 (회장); 02-880-6097 (총무); 010-9459-6327 (간사)
 홈페이지: <http://www.asak.or.kr> 이메일: asakkorea@gmail.com
 학회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101-283110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아메리카학회)